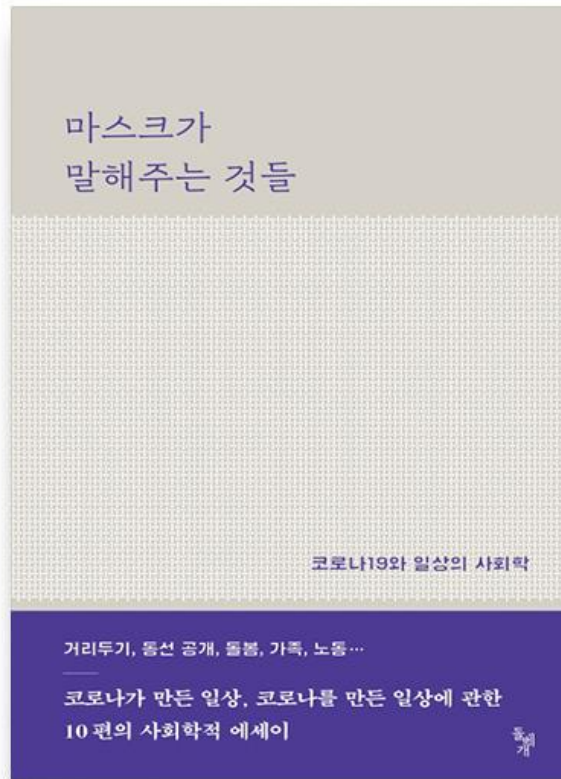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 세상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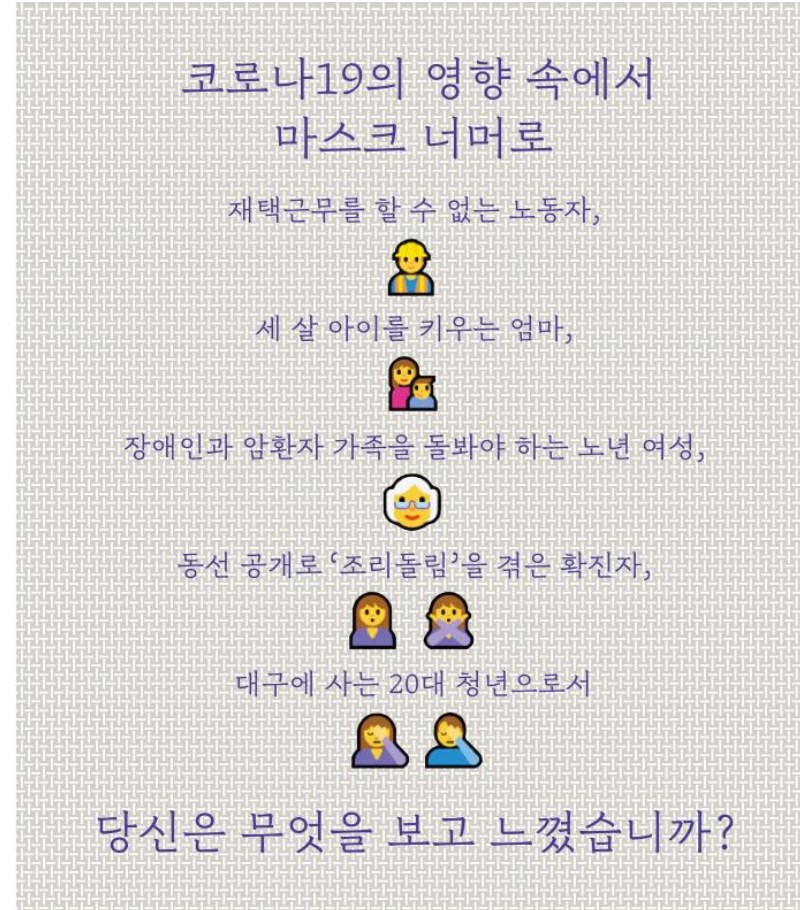
신하영

(세명대 교양대학 교수, 기윤실 상임집행위원, 청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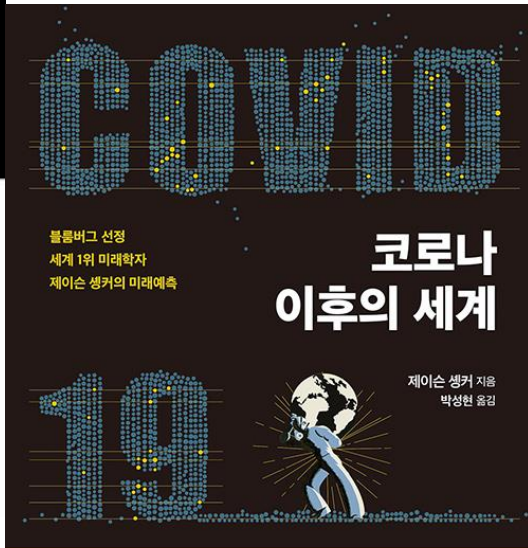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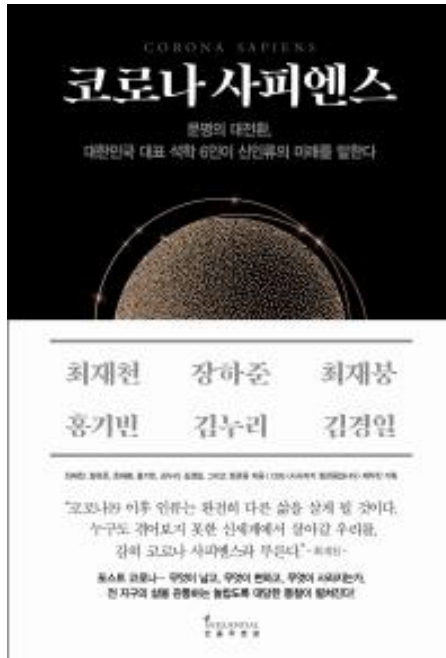
'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 교회ver.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47906001>



코로나'코인'에 올라타는 사람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41472323>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41472323>

상품(1,828)	중고장터(118)	스토리K(306)	리뷰(17,466)	책소개.목차(9,161)					
전체 1,828 국내도서 768 외국도서 20 eBook 683 sam 180 음반/영상 19 기프트 338									
카테고리	경제/경영 190	인문 98	정치/사회 91	종교 69	시/에세이 56	청소년 29	자기계발 29	소설 28	
혜택/조건	쿠폰	이벤트	무료배송	바로배송	MD의선택	오늘의책	미리보기	eBook대여	eBook연재
학년별	고등학교 공통								

인기순 | 판매량 | 신상품 | 상품명 | 할인을 | 낮은가격 | 높은가격 | 북로그리뷰수 | 클로버리뷰수 품질포함 | 20개 | 간략보기

<p>국내도서</p> <p>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p> <p>MD의선택</p> <p>문정인 정림출판</p> <p>15,300원 [10%↓]</p> <p>850원 P</p>	<p>국내도서</p> <p>트렌드 코리아 2021</p> <p>오늘의책 MD의선택</p> <p>길남도 미래의향</p> <p>16,200원 [10%↓]</p> <p>900원 P</p>	<p>국내도서</p> <p>방구석 노트북 하나로 월급 독립 프로젝트</p> <p>오늘의책 MD의선택</p> <p>노미드 그레이스 리디스북</p> <p>14,400원 [10%↓]</p> <p>800원 P</p>	<p>국내도서</p> <p>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p> <p>오늘의책 MD의선택</p> <p>클라우스 슈밥 메가스터디북스</p> <p>16,200원 [10%↓]</p> <p>900원 P</p>	<p>국내도서</p> <p>대전환의 시대</p> <p>MD의선택</p> <p>짐 로저스 일파미디어</p> <p>14,400원 [10%↓]</p> <p>800원 P</p>
<p>국내도서</p> <p>세계미래보고서 2021</p> <p>오늘의책 MD의선택</p> <p>세계미래보고서 2021(포스트 코로나 특별판)</p>	<p>국내도서</p> <p>내가 아프다 그러나 울지 않는다</p> <p>MD의선택</p> <p>대구가 아프다 그러나 울지 않는다</p>	<p>국내도서</p> <p>페스트</p> <p>MD의선택</p> <p>페스트</p>	<p>국내도서</p> <p>최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p> <p>MD의선택</p> <p>최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p>	<p>국내도서</p> <p>김미경의 리부트</p> <p>MD의선택</p> <p>김미경의 리부트(20만부 기념 리커버 에디션)</p>

<https://bit.ly/2OjHcyW>

배제와 혐오에 앞장서는 한국교회?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안의 혐오와 배제



신종코로나에 지구촌 곳곳서 '중국인 혐오' 기승

송고시간 | 2020-01-30 16:15



학교·식당 등 "중국인 출입금지"...인종차별적 분위기 퍼져나가
"인종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잘못된 정보도 급증"



보수단체 '중국인 입국금지 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인 입국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0.1.29 uwg806@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0150000009>

뉴스... 연예 스포츠 영화 자동차 부동산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
니.가래침 뱉고, 마스크.

용인서 우한폐렴 유증상자 3명 추가 발생.방역 비상
중국 전문가 "신종코로나, 박쥐-밍크 거쳐 사람에 전파 가...
홍콩대 연구팀, '신종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 주장
호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복제 성공.무증상 감염자 진...
윤석열, 이성윤이 낸 사상 첫 '이의제기서' 저버렸다



109kg 감탕 인도네시아 소
년."과거로 돌아..

조국 "기소만으로 불이익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 담담히...
"포근한데 봄이 오나" 방심 금물.다음주 강추위 온다
"중국으로 가라" 홀대입구서 한국인-중국인 간 폭행 시비
"2천400년전 카자흐 등남부 주민은 백인종.육식 즐겨"
"야당의원 인적사항 조사하라" 지시에 경찰내부 반발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3A%2F%2Fwww.ccdm.or.kr%2Fxe%2Fcomment%2F290175&psig=AOvVaw3FFoKreWmYJRs7qB45lgbB&ust=1617642327636000&source=images&cd=vfe&ved=0CA0QjhxqFwoTCIDb8LSJ5e8CFQAAAAAdAAAAABAI>

교회가 '한술 더 뜯다'?

"신종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 목사 설교에 교회도 비판

머니투데이 | 조성훈 기자

2020.02.11 06:0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012194641855&type=1>

기사주소 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전용 입국장이 별도로 신설된 4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보건당국은 4월 0시부터 시작되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2곳, 제2 터미널에 1곳 등 중국 전용 입국장 총 3곳을 설치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한 인천지역 교회 목사의 설교강의. 신종 코로나를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했다. / 사진=유튜브 캡처

- 인천지역 한 대형교회 목사는 지난 9일 유튜브에 공개한 설교 강론에서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탄압해왔으며 특히 우한이 중국내에서 선교사를 추방하고 기독교인 핍박이 가장 심한 도시"라면서 "중국 우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한 폐렴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게 성경적으로 합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 해당 동영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는 공산주의 붕괴를 위해 하늘의 계획에 의해 일어난 일", "호주도 동성결혼 법제화 이후 산불이 꺼지지않았다", "한국교회도 정신차려야 한다. 불과 유행으로 심판하려 백두산이 준비 중이다"는 등의 지지 댓글들이 달렸다.
- 이같은 주장들은 최근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터넷카페 등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한 목회자 인터넷 카페에는 "중국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우한 폐렴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같은 느낌이 든다"는 글이 올라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012194641855&type=1>

혐오표현은 혐오범죄로 이어진다.

국제

국제 일반

美에 퍼지는 아시아인 혐오범죄...한국계 할머니에 '묻지마 폭행'

조선비즈 황민규 기자

입력 2021.03.14 14:15

코로나19 이후 美서 아시아계 향한 증오범죄 149% 폭증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계 노인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 화이트플레인스 경찰은 83세 한국계 미국인 여성에게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한 혐의로 글렌모어 냄버드(40)를 지난 11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냄버드는 지난 9일 쇼핑가를 방문한 피해자를 두렵힌 이유가 관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폭행했다.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머리를 땅에 꿇고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냄버드가 도망친 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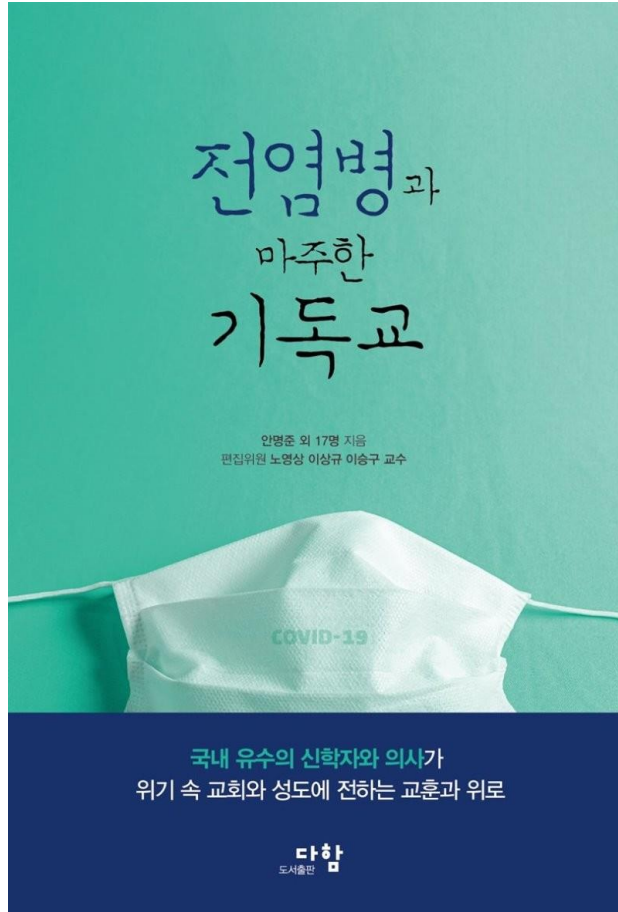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된 반아시아 혐오범죄 시위. /AF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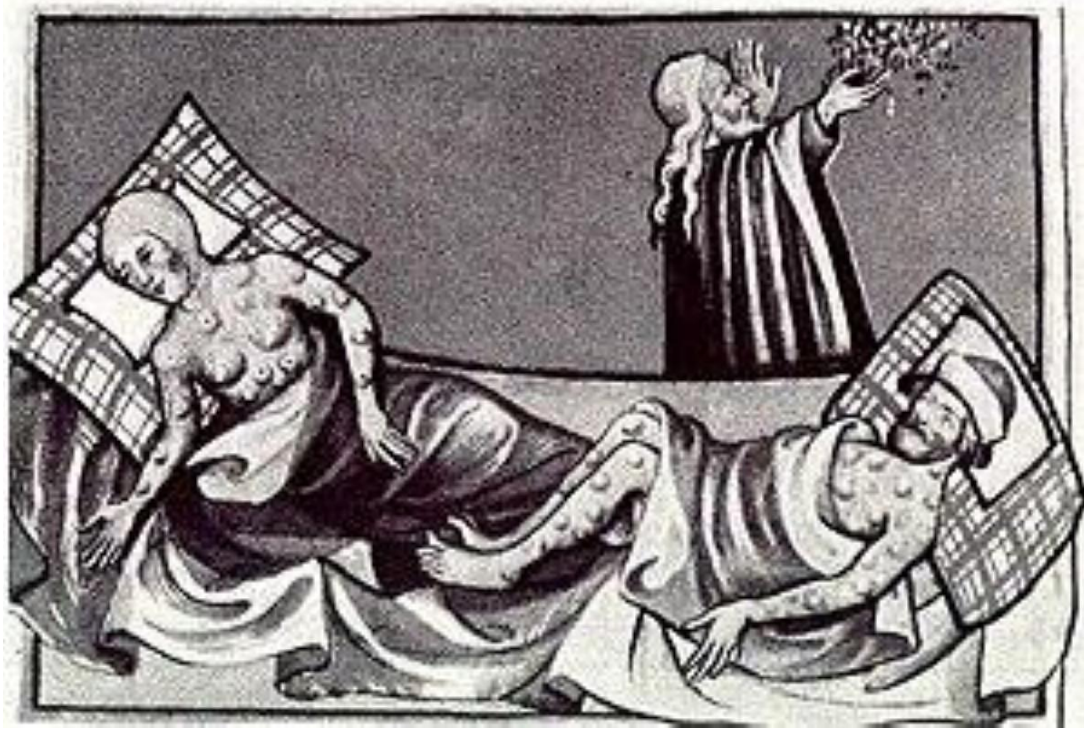


약자 보호 - 재난 앞에 선 교회의 역할

전염병과 기독교, 뿌리깊은 역사



중세시대 흑사병과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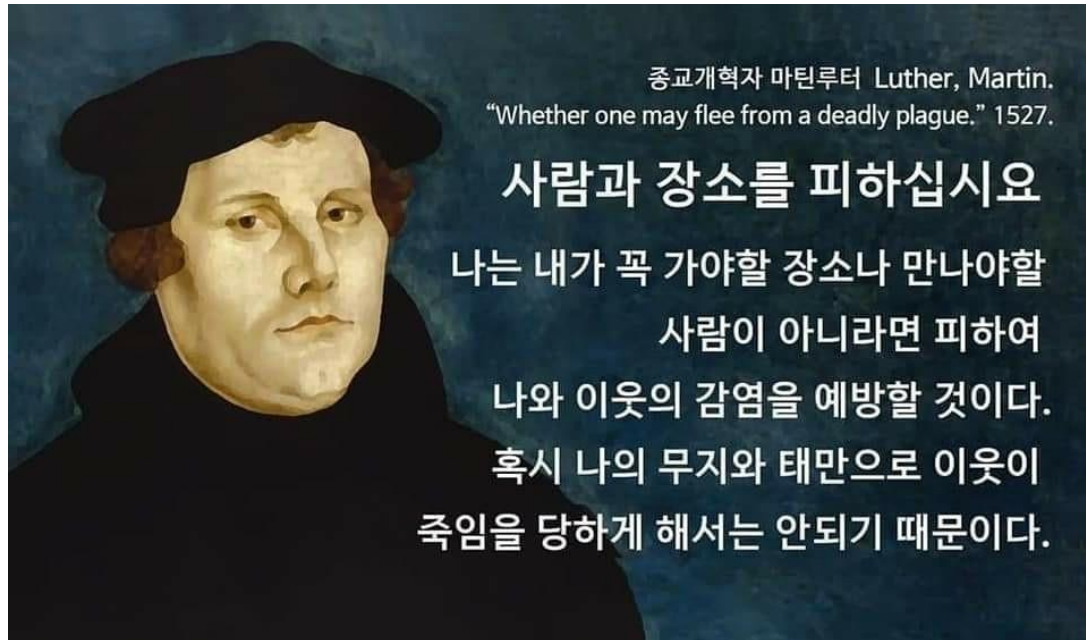
- 발원: 1347년 이탈리아 제노아 선박 (아시아 대평원->시칠리아)
-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됨
 - 실크로드를 잇는 무역과 침략전쟁
- 출혈 반점은 병의 징후인데 '하나님의 징표' God's Mark로 부르기도
- 채찍 고행단(Falgellants)출현

전염병 시기 교회의 역할의 중요성



- 유대인 혐오
- 손을 자주 씻어서 병에 걸리지 않았던 유대인
- 유대인이 병을 퍼뜨린다는 '가짜 뉴스'
- 유럽 내 유대인 학살
 - 흑사병 당시 유대인 학살에 대한 교회의 회개와 쇄신 없음
 - 제2차대전 나치의 인종청소 (유대인 학살) 반복

루터와 흑사병



루터와 흑사병

"만일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사회적약자 보호

- 구약성서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사회 소수자를 거의 편파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싸고도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으로 창조됨
-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일은 주로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남
 - 사람이 수단으로 다뤄지는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빈번히 일어남
- 성서 전통은 그런 일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으로 간주함. 그래서 구약성서는 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
-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억압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억압하는 세력에 정면으로 저항, 억압체제(안식일, 성전세 등)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행적들을 보이심
 - 이로 인해서 민족해방운동가, 정치가로 오해 받고, 군중들이 이에 실망하기도 함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7>

<http://dabia.net/xestudy1/315568>

장애인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393

1급 장애인 쫓아내는 중양보훈병원... '코로나 병상' 확보 때문

환자 보호자의 하소연 "갈 곳도 안 알려주고 퇴원만 강요"
중양보훈병원 재활병동 '코로나 전담 120병상' 전환과정서 마찰음
보훈처·보훈공단, "138명 중 128명은 해결... 남은 인원도 조율점 찾을 것"

기사입력 2020-12-16 11:15:45 | 최종수정 2020-12-16 12:04:33 | 박근빈 기자 | ray@newdailybiz.co.kr



▲중양보훈병원 전경. ©중양보훈병원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공공병원 병상 일부를 비워 코로나 전담치료에 쓰기로 했다.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비과정 없이 급하게 병상 전환이 이뤄지다보니 기존 입원환자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실제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양보훈병원이 재활병동 187병상 중 120병상을 코로나 전담병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138명의 입원환자 대부분을 설득했지만, 아직 일부 환자는 아직 갈 곳이 없어 남아 있다.

16일 중양보훈병원 재활병동에 입원 중인 1급 장애환자의 보호자 A씨는 본지를 통해 "병원에서 막무가내식으로 나가라고 중용하고 있다. 목에 튜브를 끈고 석션을 해야 하고 콧줄을 달아 식사를 하고 있는 와상환자를 갈 곳도 알려주지 않고 나가라고 한다"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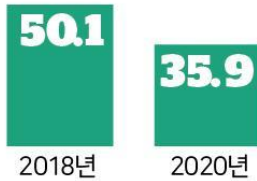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16/2020121600068.html>

돌봄수요자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아동 생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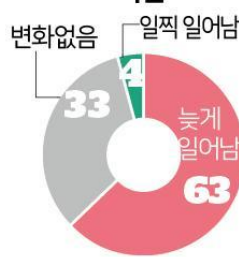
결식 증가 인스턴트 식품섭취 증가
세끼 모두 챙겨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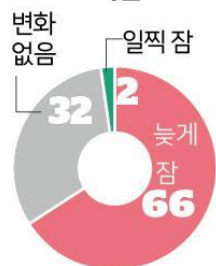
초등생 운동량



초등생 일어나는 시간



초등생 잠자는 시간



가정 식비



돌봄 격차와 학습격차 (단위: %)

돌봄취약계층 아동이 주중 어른 없이 있는 일수



원격수업이 학업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나

학습 돌봄 사람이 없는 학부모



학습 돌봄 사람이 있는 학부모



●굿네이버스, 희망친구기아대책, 서울시교육청교육 연구정보원 설문조사 취합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Print/A2021011417160004272>

코로나1년, 망각

"학습격차요? 속 편한 사람들 얘기죠. 밥도 못 챙겨 먹이는데..."

입력 2021-01-19 04:30 수정 2021.01.19 07:42

중학교 2학년 아들과 함께 초등 4학년 딸 지영(가명)이를 홀로 키우는 40대 학부모 김진주씨는 자포자기 수준이다. 없는 살림이라 그저 "학교선생님을 과외선생님 삼으며" 공부시켜 왔는데, 원격수업과 함께 지영이는 아예 공부를 그만둔 분위기다. 담임교사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화까지 걸어왔지만,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을 밖에서 보내야 하는 김씨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 갈 학교도, 놀 친구도 없는 지영이는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 김진주씨는 "가난의 악순환이 더 깊고 단단해졌다는 공포심이 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을 이용한 언택트 학습이 뉴노멀'이라며 학력 격차를 줄이자는 얘기가 요란했지만, 선우와 지영이는 학력 이전에 돌봄에서 격차가 벌어져버린 아이들의 상황을 생생히 보여준다.

돌봄제공자

코로나 유행 장기화에 여성노동자 3분의 1 “가족돌봄 박”

등록 :2020-09-17 20:49

☞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 318명 설문조사

‘하루 평균 2~4시간 증가’ 답변 가장 많아
돌봄노동 분배 “본인 73.5%, 배우자 14%”
‘돌봄위기 지속 땀 회사로 이어질 가능성’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돌봄노동자 생계대책 및 돌봄 국가 책임 추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씨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 했지만, 회사 관리자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휴가를 강행했다가 씨는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회사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집안일만 신경쓰는 것이냐”는 등의 질책을 여러차례 받은 씨는 요즘 회사를 고민 중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서울시 산하 직장맘지원센터에는 이러한 고충상담 사례 접수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사회격 거리두기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돌봄노동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그로 인해 실직과 생계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62630.html>

뉴스데스크 조희형

'돌봄 노동·고용 불안'...코로나 우울, 여성이 더 심각

입력 2021-01-26 20:35 | 수정 2021-01-26 20:37



앵커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블루'라고도 불리는 이 신종 우울감을 특히 여성들이 더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사나 돌봄의 부담이 집중되는 여성들이 특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0148_34936.html

지금 교회 안에 일상이 무너지는 이들은 없는가?



"지금 발달장애인들은 아예 갈 곳이 없다.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똑같다.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관 문을 다 닫았다. 그러면 서비스 빈틈을 고스란히 가족이 져야 한다. 교회는 나라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대형 교회들은 빈 공간이 많으니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초청해 두 시간만이라도 함께 보냈다면 부모들 짐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79>

과학과 지성과 점점 멀어지는 교회

일부 교회의 '일탈' 일까?



16일 방역당국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47명의 확진자가 나온 은혜의강 교회는 이달 1일과 8일 예배를 보러온 사람들 입에 분무기를 이용해 소금물을 뿌렸다.

소금물을 분무해 '소독'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이 교회 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소금물을 분무하면 입자가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 있는 미립자)로 나왔을 것"이라며 "이 에어로졸이 교회에 있던 코로나19 환자의 비말과 섞여 공기 중에 떠다니며 전파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6164400017>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교회 단톡방'

권지연 기독교 언론인 평화나무 진실성검증센터장 16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소금물 분무기는 가짜뉴스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권 센터장은 "굉장히 안타까운 건 지금 이 교회에서 활용한 방법이 일명 가짜뉴스 카톡방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많이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가짜뉴스 단톡방이라는 곳에서 이런 뉴스가 근거가 없는 의학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 몸에 우리 몸에 염도를 0.9%이상 유지하면 괜찮다라든지 아침저녁으로 소금물로 가글하면 된다라든지 이뿐만 아니라 잘 때 머리맡에 양파를 두면 괜찮다라든지 이런 근거 없는 내용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다"라고 덧붙였다.

권 센터장은 "이런 작은 교회일수록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이런 민간요법을 보고 이걸 괜찮다고 믿어버리고 그런 행태가 지금 여기서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추측했다.

권 센터장 역시 일부 목사들로부터 민간요법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그 내용을 보면 뭐 보수층에서는 대부분 우한폐렴이란 용어를 굉장히 고집하시기도 하지 않냐.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한폐렴 용어를 굉장히 고집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메시지에 보면 우한이 아니라 '우환폐렴'이라고 이것도 이제 오타가 발생해서 돌면서 민간요법이라고 많이 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윗세대 분들은 여러 가지 민간요법조차도 믿어야 본전 아니냐 하면 좋지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하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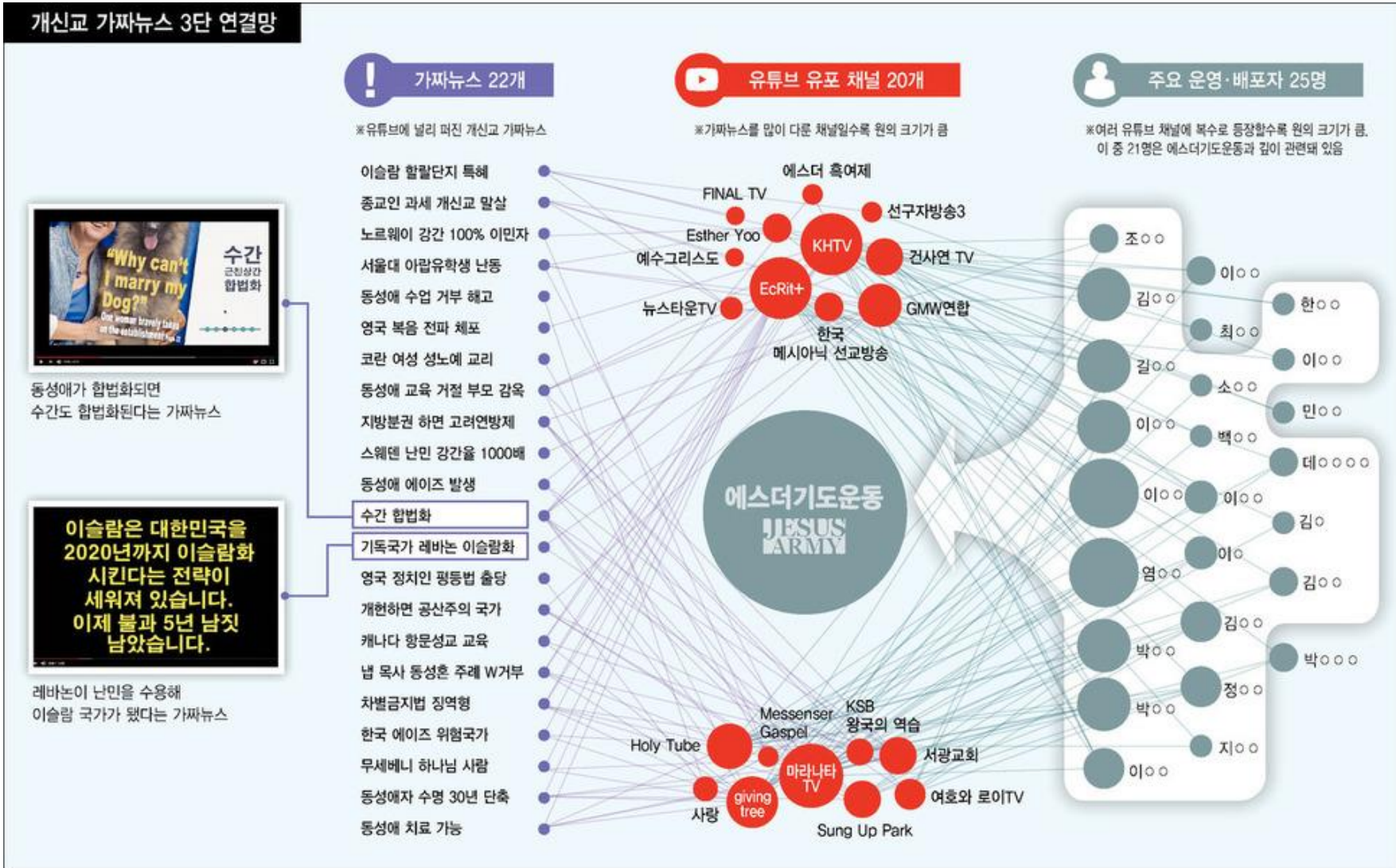
악의적 명예훼손과 폭로, 그리고 가짜뉴스



- 인포데믹(infodemic)
 - 정보 + 감염증
 - Information + pandemic



어쩌다 개신교는 가짜뉴스 확산 통로가 되었을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교회 단톡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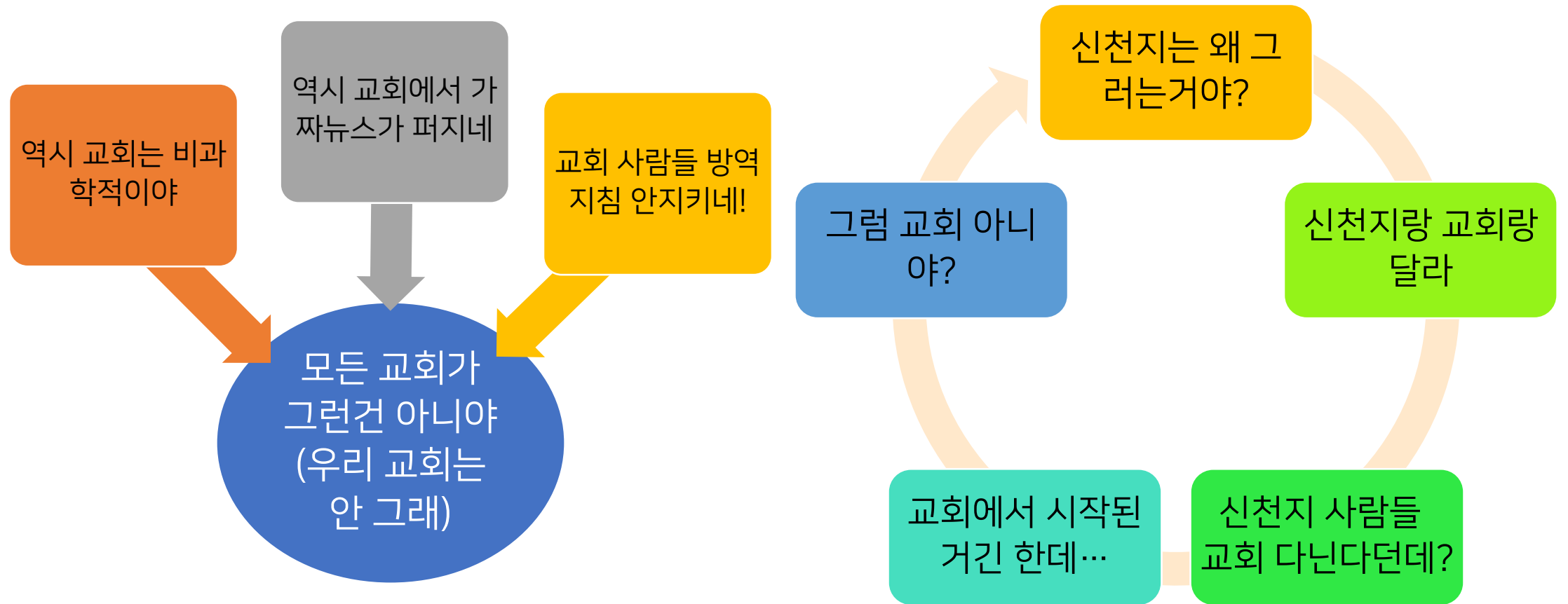
반계몽주의, 불통, 음모론



- “세상의 모든 '옳은 소리'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만 고정관념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세상엔 정답이 없고 무수한 해답이 있는데, '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라는 건 군사독재의 악습이다.”
- 채현국 (1935년 3월 16일 ~ 2021년 4월 2일)

post/with COVID19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

끊임없이 '선 긋기'해야 하는 우리들



'남은 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 “남은 자” 하나님께서 불러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미 2:12-13)
 -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의를 행하는 자”(습 2:3)
 -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 심판 때에도 은혜와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 노아 홍수 때의 노아
 -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의 롯
 - 이스라엘의 남아학살 중 모세
 - 이스라엘 가나안 진군 때 여호수아와 갈렙
 - **신약 시대에는 성도가 남은 자 (롬 11:25-26)**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사야 10:20-23).

감사합니다.

신하영 (edustella@daum.net)